#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… 제약·바이오 기술 수출 '부진'

## 올 수출 규모 4.5조 그쳐 3년來 가장 낮은 수준 신약물질 투자 등 위축

올해 제약・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5조원 가량 이뤄졌지만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. 전 세계 경기침체와 자금 경색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 로 풀이된다.

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출 규모는 총 13건으로, 금액 은 계약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3건을 제외하면 약 4조5000억원 규모인 것 으로 집계됐다.

올해 가장 큰 기술수출 성과를 낸 곳은 에이비엘바이오다. 에이비엘바 이오는 지난 1월 글로벌 제약사인 사 노피와 퇴행성뇌질환 신약 후보물질 'ABL301'에 대한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.

동아에스티는 올해 유일하게 2건 의 기술수출에 성공했다. 동아에스티



올해 제약·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은 약 4조5000억 규모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준 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는 지난 7일 튀르키예의 폴리파마와 2세대 빈혈치료제 다베포에틴-알파 바이오시밀러 'DA-3880'에 대한 독 점적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계약금과 마일스 톤 등 계약 규모는 비공개했다.

앞서 지난 9월에는 미국 뉴로보와 파마슈티컬스 2형 당뇨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DA-1241과 비만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DA-1726의 독점 개발권 및 독점 판매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총 4700

억원 규모다. 이어 이날 뉴로보는 약 444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 며 계약 조건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자 회사로 편입됐다. 동아에스티는 향후 뉴로보를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(R&D)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.

이 외에도 지씨셀, 종근당바이오, 이수앱지스, 제넥신, 코오롱생명과 학, SK바이오팜 등이 기술수출 성과 를 이뤘다.

다만, 올해 기술수출은 예년보다

크게 줄어들었다. 지난 해 국내 제약•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은 총 32 건,계약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사 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. 계약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3건은 제외한 규모다.

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조3700억원이던 기술수출 규모는 2019년 8조5200억원으로 늘 었고, 2020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 파했다. 지난 해 11월 초까지 기술수 출 계약이 총 27건, 약 9조원 규모였 던 것을 감안하면, 올해는 그 절반에 그치며 최근 3년래 가장 부진한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.

제약업계 관계자는 "글로벌 시장 역시 인플레이션, 경기 침체로 투자 를 줄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해 임상을 확대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"이라며 "하지만 최근 세계최대의약품박람회(CPhl)등에 서 파트너 협의가 꽤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말, 내년 초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/이세경 기자 seilee@metroseoul.co.kr

### 동아제약

## 조르단 친환경 칫솔 선보여

동아제약 파트너사 인조르단코리아가친 환경 칫솔 '조르단 그 린클린 체인지(사진) 를 출시했다고 9일 밝 혔다.



조르단 그린클린 체

인지는 파마자 오일에서 추출한 100% 식물 성 천연모를 활용했으며, 재생종이 패키지 와 FSC(산림관리인증), PEFC 인증 용지로 포장 라벨을 제작한 친환경 칫솔이다. 또 조 르단의 오랜 연구를 기반으로 인체공학적으 로 설계돼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.

특히 이번 신제품은 칫솔모 부분만 교체 가 가능해 칫솔 손잡이는 반영구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칫솔 손잡이를 재 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율을 82%나 줄 일 수 있게 됐다. 칫솔모 리필은 별도로 판매 /이세경 기자

### 유한양행

## 로즈마리 피부 건기식 출시

유한양행이 피부 건 강을 돕는 건강기능식 품 '와이즈헬스스킨클 리어로즈마리'를출시 한다. '와이즈헬스 스 킨클리어로즈마리'는 오는 11월 10일 오전



10시25분에GS홈쇼핑을통해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.

와이즈헬스 스킨클리어 로즈마리는 피부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다.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 는 로즈마리추출물등복합물과 기초 영양을 생각한 비타민A와 비타민E, 지방, 탄수화 물,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

오틴을 추가한 제품이다. /이세경 기자

## KGC인삼공사

## 국내 최초 '색채상표권' 획득

KGC인삼공사는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 채조합(상단 적색/하단 흑색/좌・우 금색테두리 ·사진)에 대한 '색채상표 권'등록 결정을 받았다 고 9일 밝혔다.



2007년 7월 도입된 '색채상표'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로 기호 ·문자 · 도 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또는 색채 단독으 로만 이뤄진 상표로 나뉘어진다. 이번 KGC 인삼공사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.

'색채상표권'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 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. 이는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.

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'하리보(HAR IBO·금색)'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'색채상표권'이다.

# 분뇨로 비료 생산… CJ피드앤케어, 친환경 자원화 박차

## 베트남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출시 미생물 활용 부숙 거쳐 친환경적

CJ제일제당의 사료·축산 독립법 인 CJ피드앤케어(Feed&Care)가 친 환경 자원화에 나섰다.

CJ피드앤케어는 베트남에서 돈분 (돼지의 배설물)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 질 비료 'ECO POWER(에코 파워)1 (사진)'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.

최근 베트남 비료 시장은 환경오염 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와 정부의 축 산환경법 강화에 따라 친환경 유기질 비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CJ피드앤 케어의 존재감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.

'에코파워1'은미생물을이용해돈 분을 생물학적으로 자연 숙성시킨 유 기질 비료다. 베트남에서 기존 판매



되는 유기질 비료와 달리 가축 분뇨를 미생물 반응을 통해 분해 및 안정화시 키는 '부숙'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.

'부숙 완료'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적이고 안전하다. 실제로, 한국 축산 과학원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축산 폐 기물을 자원화하면 분뇨를 별도 처리 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70%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

또, 유기질 비료는 화학비료에 비 해 통기성이 좋아 토질을 개선하고 작 물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반면 미부숙된 분뇨는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시키고, 사멸되 지 않은 병원성 미생물이 재분열해 오 히려 작물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.

이번 신제품은 베트남 국가검증기 관(국가 농업농촌개발부 비료시험 센 터)으로부터 유기질 비료 생산, 판매.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 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. 또, 베트 남에서 한류문화와 K푸드에 대한 인 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겉포장지 에는 '한국의 기술로 만든 유기질 비 료'라고 표기한 점도 눈에 띈다.

2019년 7월 출범한 CJ피드앤케어 는 지난해 연간 약 2조4000억원의 매 출을 기록했다.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를 중심으로 사료·축산 사업을 활발 하게 펼치고 있으며, 글로벌 매출 비 중이 80%를 넘을 정도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한편,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(MA RD)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8만 톤 (전체비료시장의 약2%)에 불과했던 유기비료 소비량은 2021년 119만 톤 (전체비료 시장의 약 10%)으로 연평 균 성장률이 27%에 달한다. 베트남 에서는작물생산량극대화를위해화 학비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환경 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어 유기질 비료에 대한 니즈와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.

/신원선 기자 tree6834@

## JW중외제약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가입

ESG 경영 활동 가속화

JW중외제약은ESG(환경·사회·지 배구조)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정보공 개프로젝트(CDP) 가입을 완료했다 고 9일 밝혔다.

CDP는 약 90개국에서 글로벌 기 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 국의 국제 기구로, 전 세계 1만8700개 기업의 환경경영정보를 글로벌 금융 기관 등 800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.

JW중외제약은 CDP 가입을 위해 과거 4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너지 사용량, 환경 분야 의사결정 지

배구조, 사업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 를 작성해 한국표준협회 검증을 받았 다.

특히 JW중외제약은 검증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중가장 광범위 한 '스코프(scope)3' 인증을 획득했 다.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는 스코프1 ~3으로 나뉘는데 스코프3는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물류, 제품 사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 는 모든 배출량을 포함한다.

JW중외제약은 CDP 가입을 계기 로 탄소중립경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 이다.

/이세경 기자

# "복부자가조직 유방재건, 부피 감소 없어"

##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연구팀

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연구팀에 복부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 이 후, 장기적으로 재건 유방의 부피 감 소는 일어나지 않음을 밝혀냈다.

9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성형 외과 우경제 교수(사진)와 박진우 교 수는 삼성서울병원과의 공동연구로 3D카메라를 통해 '근육전체보존 복 부조직 이식을 이용한 유방재건'이 후 1,3,6,12개월째의 양측 유방부피 를 비교했다. 그 결과 연구팀은 재건 유방의 상대적인 부피가 12개월 이후 까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



2022년 10월 미국미 세수술학회지(SCI E)에 발표했다.

특히 수술 후 방 사선, 항암 치료 이 후에도 부피 감소가

일어나지 않고 체중의 변화에 따라 정 상유방과 비슷하게 변화하면서 상대 적인 크기가 유지됨을 밝혀냈다. 이 에 수술시간, 의사의 숙련도 등의 요 건만 허락한다면 복부지방조직 이식 을 이용한 유방재건이 장기적으로 장 점이 많은 복원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 됐다.

/이세경 기자

/신원선 기자